



교육연합신문



2026년 6월 3일 (수) 제445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그랜드모먼트 유스호텔 ▶7면

그랜드모먼트 유스호텔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특색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체육중, 전국소년체전 금 16개 ▶11면

부산체육중학교(교장 윤강)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개교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성과...



전북교육청,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14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S2B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7일 브리브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

김문수 의원 “시도교육청 2년 연속 재정적자”

(주)케이스스, “수도권 LED 전광판 시장 대응 강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8조 7840억 원 적자... “교부금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서울지사 확장 이전... 6월 미라스베이거스 북미 최대 AV 전시회 '인포컴' 참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5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9.21%로 악화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적자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되며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교육활동,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자체 세입 기반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 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도별로는 2022년 17개 교육청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LED 전광판 전문기업 (주)케이스스(대표 천병민)가 지난 5월 18일 서울지사를 확장 이전하고 수도권 시장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번 확장 이전은 수도권 내 국산 LED 전광판 경쟁력 강화와 공공기관 및 민간 수요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케이스스 서울지사 확장 이전

특히 2022년에는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19조 92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3년 재정 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러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수입 확대가 쉽지 않은 반면 인건비와 학교

남도교육청 759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비교적 큰 적자를 기록했다.

새롭게 이전한 서울지사에는 케이스스 주요 제품들로 구성된 대형 LED 쇼룸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14m 길이의 초대형 울트라와이드 전광판을 비롯해 커브형, 배너형, TV형, 전자현수막형 LED 전광판 등 다양한 제품군이 전시되며, 케이스스 AV 스위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사 현장에서는 케이스스의 수도권 시장 대응 전략과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케이스스는 국내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기업으로, LED 전광판 설계부터 생산, 검수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23년 2조 2102억 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8조 78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23년 -2.4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23년 2조 2102억 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8조 78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23년 -2.45%,

적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이 1조 9356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9207억 원, 경상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3.97%로 가장 낮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13.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18%, 전라남도교육청 -11.52%, 대전광역시교육청 -1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에는 14m 길이의 초대형 울트라와이드 전광판을 비롯해 커브형, 배너형, TV형, 전자현수막형 LED 전광판 등 다양한 제품군이 전시되며, 케이스스 AV 스위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시장에는 고품질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적용돼 단순 제품 전시를 넘어 공간 연출과 콘텐츠 활용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적합한 품질 기준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전·roller 기업 노바스타(Novastar)를 비롯해 케이스스의 주요 파트너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D-30 실행체계 본격 가동

“AI 교육 안전하고 의미 있게...”

전남교육청, 본청 팀장 대상 6월 추진 로드맵 안내 통합 체계적 준비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생성형 AI 활용 연구 성료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단장 윤양일)은 6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7월 1일 공식 출범을 한 달 앞두고 본청 팀장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추진 로드맵과 실무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교육행정분야 6월 추진 로드맵 및 부서별 준비사항 ▲교육정책분야 실무협의체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예산 편성 ▲사무공간 정비 ▲정보시스템 통합 등 분야별 준비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부서 공통 준비사항과 조직개편 관련 이행 과제를 안내해 부서별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 22건 ▲보건·건강교육 분야 조례 12건 ▲다문화교육·성평등교육 분야 조례 8건 통합안 마련 등이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서부 분과(회장 조덕형)는 지난 5월 20일 인천서곶초등학교 해바라기 Edu-tech 미래교실(꿈자람터)에서 관내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케이스스의 수도권 시장 대응 전략과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케이스스는 국내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기업으로, LED 전광판 설계부터 생산, 검수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통합 출범 전 핵심 기간인 6월의 주요 업무 일정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

교육행정분야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한 통합교육감 선출과 조직 확정을 계기로 ▲조직 개편

교육정책분야에서는 양 교육청 실무협의체가 마련한 자치법규 통합안과 사업 운영 방향 정비 결과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분야

연구를 위해 끝까지 세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참여 교사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수업 자료 제작과 전자책 생성 등 다채로운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가정통신문 작성, 민원성 문자 답장 및 정책 제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실습을 병행해 현장 적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과 상담 등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연계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사담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1588-3886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영광군-영광교육지원청 돌봄 모델 최우수 선정

전남교육청, 방학 중 학교·지역기관 역할 분담 통한 전일 돌봄체계 '주목'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한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사업' 공모에서 영광군-영광교육지원청 컨소시엄이 호남제주권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특색 있는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평균 8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영광군-영광교육지원청 컨소시엄은 지역 연계성, 운영 체계, 지속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이 모델은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전일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학교는 오전 중심 프로그램을 맡고, 지역 돌봄기관은 오후와 저녁 중심 돌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별 학생 수요를 분석해 문화예술, 체육, 영어, 기초학습

등 특화 프로그램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불갑사와 영광예술의전당, 지역 체육시설,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지역 기관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지역 문화와 자연, 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6월 한 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여름방학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모델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영광 최우수 모델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한 우수 사례"라며,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돌봄·교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석 기자 2580news@daum.net

교육감協,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반발

"교육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수용 불가... 연간 최대 20조 재정 손실 우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5월 29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했다.

협의회는 우선 개편 논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협의

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라며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재정당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재정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학계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 대상으로 보는 이번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社說

'신의 한 수'는 질문하는 돌연 변이에게서 나온다

2016년 3월 서울,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결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역사적 사건이었다. 3연 패의 절망 속에서 맞이한 제4국, 이세돌 9단이 던진 백 78수는 알파고의 연산 오류와 혼란을 유도하며 극적인 1승을 거두었다. 세상은 이를 '신의 한 수'라 불렀다.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계 신(神)을 향해, 인간이 던진 돌발적이고도 엉뚱한 '돌연변이의 수'가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이른바 '우물 안의 경쟁'을 펼쳐왔다. 남보다 한 권의 책을 더 외우고,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내며, 정해진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지능'이라 정의했다. 학교는 오류 없는 지식의 복제기를 우등생이라 칭송했고, 부모는 아이들을 그 규격에 맞춰 뒤로 내몰았다. 그러나 평화롭던 우물 위로 나타난 AI라는 거대한 존재는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의 성벽을 단 몇 초 만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지식, 의사의 진단 데이

터, 프로그래머의 코드까지 정답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AI 앞에서는 헛값의 데이터로 전락했다. 이제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은 실력이라 아니다. 정답만을 쫓던 성실한 모범생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대체될 위험군이 된 것이다. 당신이 알던 '공부'는 죽었다.

이제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프롬프투스(Homo Promptus)'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기계와의 논리 경쟁이 아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인간은 결코 AI를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길을 이탈하는 돌연변이적 사고이자, 돌발적인 질문으로 정형화된 시스템을 뒤흔드는 능력이다. 뿌리에서 줄기로 뻗어 올라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수목형 사고'를 과감히 해체하고, 중심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끊임없이 연결되는 '리좀(Rhizome)형 사고'로 도약해야 한다. 정해진 전공, 고정된 직업, 규격화된 삶의 궤적을 탈영토화할 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의 종말은, 가장 인간다운 '질문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의미한다.

다. 결핍을 느끼고,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버려진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야말로 기계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능의 최전선이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능의 감옥을 부수러 온 해방군에 가깝다. 기계와 경쟁하기를 멈추고 AI라는 강력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순간, 인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유의 광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능은 이제 머릿속에 가두는 '명사(Noun)'가 아니라, 세상과 접속하고 흐르는 '동사(Verb)'다. 내 뇌세포 안에 갇힌 소유물이 아니라, AI라는 지팡이를 짚고 타자와 접속하며 만들어내는 연결의 에너지다.

우물 속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활한 야생의 대지로 나설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가 던지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 그 돌연변이 같은 '87수의 신의 한 수'가 AI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울려 세상에 없던 교향곡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물을 허문 지능의 반란자들여, 이제 광활한 사유의 야생에서 당신만의 지도를 그릴 시간이다.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행복한하루치과, 상생 협력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임직원 복지 증진·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와 행복한하루치과는 5월 18일 오후 1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직원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행복한하루치과의 전문 의료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홍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치과 진료 및 구강관리 서비스 지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행복한하루치과의 의료서비스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언론 홍보 지원 ▲지역사회 공익활동 및 건강증진 캠페인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행복한하루치과는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치과 진료 서비스와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



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교육연합신문은 언론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 캠페인, 의료봉사 활동,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한하루치과 이진호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언론과

의료기관이 함께 시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신뢰받는 진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치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 황오규 대표원은 "임직원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ijh@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체·정서·놀이 분야 전문가 참여... 전문학회 4곳과 협약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2일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학회 4곳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됐다. 협약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육아정책연구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가 참

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조기 학습 중심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신체·건강, 정서·애착, 두뇌·학습, 교육·놀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모와 현장에 과학적·학습적 근거 기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들은 영유아기의 배움이 단순한 조기 지식 습득이 아닌 신체·정서·사회성·인지 발달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 중심 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올바른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김병선 기자 kbs@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7)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병선 기자 kbs@

교육부, AI·돌봄·국가책임 교육 본격화

최고진 장관 “교육이 국민 희망 되도록 구조적 개선·교육개혁 지속 추진”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5월 22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교육혁신과 국가책임 돌봄, 지역 중심 교육체계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국립대 해외 진출과 한국어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등 국립대 2곳이 해외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6개국 38개 사업단을 지원해 학과 신설과 교수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 콜롬비아·이집트·포르투갈·바레인 등 4개국에 한국어반을 신규 개설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700여 명을 양성하고, 한국인 교원 파견도 올해 77명에서 내년 93명으로 확대한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습은 올해 557학급에서 내년 629학급으로 늘리고, AI 기반 한국어 학습용 디지털 기기 1000대도 보급했다.

AI 교육혁신 정책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역 AI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질문 중심 수업 활성화, AI·디지털 문해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도교육청 지정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90개교를 운영해 학생 참여형 수업 혁신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 사례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AI교육원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학부모·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연계 AI교육 전문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정책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와 계약학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지방 거점대 지원이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교육부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온돌내 초등돌봄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헌법교육과 역사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AI 시대 도래와 지역 균형발전, 헌법 가치 실현 등 사회 변화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왔다”며 “교육이 모든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개선과 교육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전남교육청 산하기관 3곳,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공정·청렴한 계약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S2B 이용 실적과 이용 증가율 등을 종합 평가해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호남권 시상식은 27일 광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전남교육청은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활용 ▲S2B 전남업체 전용 코너 운영 ▲소상공인 대상 S2B 가입 및 이용 독려 ▲S2B 사용자 교육 실시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2025년 기준 S2B 지역업체 이용

비율이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78.5%를 기록했다.

이번에 수상한 영광교육지원청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4년 연속 선정된 무안행복초등학교와 공동 수상한 목포공업고등학교는 학교 단위 청렴계약 운영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영광교육지원청과 목포공업고등학교, 무안행복초등학교가 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 ‘제14회 학교장터(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S2B(학교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매년 전국

김홍제의 목요칼럼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를 경쟁자라만 보거나 숫자와 성과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쟁, 인공지능, 숫자, 비교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은 그대로서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타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에 가깝다. 진짜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보일까’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사회의 품격은 그 사회가 어떤 아름다움을 존경하느냐에 달려 있다. 돈과 성공만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사람의 마음은 거칠어진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하루하루의 선택이 겹쳐서 한 사람의 표정을 만든다. 배려와 품위가 있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인간답게 대하려 애쓴다. 자기 자신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을 위한 공간이 없다.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움이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 그 친절은 햇살처럼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든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한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 교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감’을 가르치는 것이다. 공감은 단순히 착해지는 교육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공감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학교는 점수를 경쟁하는 공간이기 전에 인간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어른들의 태도를 더 많이 배운다. 교사와 부모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말할 수도 없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와 태도로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이 서로를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는 세상이다. 아이가 실수해도 모욕당하지 않는 학교, 나이 들었더라도 이유만으로 쓸모없다고 취급받지 않는 사회. 아픈 사람이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곳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세상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은 사회’이다. 사람들은

점점 타인의 불행에 익숙해지고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할 때다.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거나 숫자와 성과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잠시라도 함께 서주는 누군가가 있는 세상. 인간다운 따뜻함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회.

그런 세상이야말로 기술보다 오래가고 돈보다 강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믿는다. 교육은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 사람다운 사람, 공감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박은 다양한 꽃들이 서로 어우러져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김홍제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기고

버드나무가 엮어낸 마을의 기억, 사람을 잇는 공동체 공간 ‘고분도리’

꽃과 커피, 그리고 이웃의 정이 머무는 곳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의 한 골목길. 화사한 꽃과 푸른 나무가 반갑게 맞이하는 공간이 있다.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공동체의 온기를 이어가는 마을공동체 공간 ‘고분도리’다.

고분도리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며 마을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공동체 플랫폼이다. 도심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웃 간 정과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분도리라는 이름에는 마을의 역사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로부터 일대 냇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 생활용품인 ‘고리짜’를 만들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리짜는 버드나무 가지나 대오리를 엮어 만든 상자 형태의 생활도구를 보편하는 데 널리 사용됐다.

지역 향토사에 따르면 ‘고분도리’는 ‘고블(고리짜)’과 ‘도르(들머)’가 합쳐진 말에서 유래했다. 즉 ‘고리짜를 만들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고리짜를 만드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마을 이름 속에는 선조들의 삶과 노동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러한 온기를 이어가는 마을공동체 공간 ‘고분도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꽃과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야외 테라스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페 내부 역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주민 모임과 마을 프로그램, 문화 활동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어르신부터 청년,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고분도리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한 주민은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며,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정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주민은 “사막해진 도시에서 마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이런 공동체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도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고분도리. 버드나무로 고리짜를 엮던 선조들의 손길처럼, 오늘날 고분도리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엮으며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꽃과 향기,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공간. 고분도리는 오늘도 마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미하 고분도리 이사장 서구 서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前 서구 서대신동 부녀회 회장 前 서구 부녀회 부회장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EXHAUST AIR
외부공기 배기

OUT DOOR AIR
외부공기 흡기

SUPPLY AIR
실내공기 배기

RETURN AIR
실내공기 흡기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멘토 4인 재능기부로 지혜 나누는 소통의 장

전남교육꿈실현재단, 인생 선배들의 삶 읽는 '사람책 멘토DAY' 성료

(재)전남교육꿈실현재단은 지난 5월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서부권 지역 청소년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꿈 실현 인생학교 '사람책 멘토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멘토가 직접 한 권의 '책'이 돼 삶의 지혜를 나누는 독특한 방식으로 기획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모태가 된 '꿈 실현 인생학교'는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1~3년 과정의 장기 자기주도형 꿈성장 프로젝트다. 전남교육청은 청소년들이 '꿈 세움, 꿈 키움, 꿈 나눔, 글로벌'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의 문을 연 김성애 꿈 실현 인생학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완벽한 성공담을 듣는 자리 가 아니라, 먼저 고민하고 부딪혀 본 인생 선배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읽는 시간"이라며 참가한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람책' 세션에서는 문화, 로컬, 기획, 생태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4인의 멘토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첫 번째 사람책으로 나선 박경은 (힐링아일랜드 섬투어 대표) 멘토는 '겁 많던 청년, 세계를 걷다'를 주제로 평범했던 자신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도전 여정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박 대표는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평범한 사람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큰 박수를 받았다.

두 번째 사람책인 김유솔 완도 용암마을 이장은 '지옥철 타고 출근하던 내가 오늘은 5년 차 이장'이라는 위트 있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대도시 중심의 삶을 벗어나 전남 완도에 정착해 청년 로컬 활동가이자 지역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그의 스토리는 학

생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배수진 멋진 세계 빌라마노 대표(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위한 작은 조언'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배 대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에게 "생각의 경계를 넘어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자신의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남 산이정원의 이병철 정원사가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환경'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이 정원사는 평생 생태환경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마인드가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전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멘토들이 눈을 맞추며 진로 고민을 나누는 종합 질의응답과 서로에게 격려를 전하는 '사람책 릴레이 응원 한 문장' 순서가 진행되어 감동을 더했다.

이길훈 전남교육꿈실현재단 원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네 권의 사람 책은 청소년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책을 한 줄 한 줄 당당하게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격려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기고

익수 사고 골든타임, AI가 먼저 발견하는 시대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는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공장은 AI가 사고를 예측하며, 병원은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분석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활체육 안전 현장은 아직도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수영장이다. 수영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건 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동시에 단 몇 초의 사고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기도 하다.

현재 대부분의 수영장은 안전요원의 육안 감시와 경험 중심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현장의 안전요원들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수영장은 넓고, 이용객은 많으며,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물속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혼잡 시간대나

사각지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익수 사고의 상당수는 "조금만 빨리 발견했다더라"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CCTV 감시가 아니다. 영상 분석과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고, 장시간 수면 아래 머무름이나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를 전달한다. 즉,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예방 중심의 안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안전요원의 경험과 AI의 실시간 분석 능력이 결합될 때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체육시설에서는 AI 기반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적인 표준화와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술 경쟁력을 국민 생명 안전 분야에도 적극 연결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수영장 이용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제 수영장의 안전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 인프라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선진 안전문화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AI 안전관리 기술은 거창한 미래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투자다.



김종학
◆ 케이원에코텍(주) 대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5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이선규 여수정보과학고 교사 대상 수상... 5개 부문 총 11명 선정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는 5월 2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와 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며,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상이다.

금년 대한민국 스승상의 대상(大賞)은 이선규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대학교육 등 5개 부문에서 총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선규 교사는 환경이 어렵거나 학업 및 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해 왔으며, 부사관동아리 봉사 활동 등을 통해 학생 100여 명을 국방부 공무원으로 합격시키는 등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홍준·육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 원이 각각 주어졌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참스승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스승 존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프로필과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은 스승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연 기자 lyy@

교실 밖 떠나는 사제동행 진로여행

진상중, 파크골프·지역사회 직업 현장 체험 운영

진상중학교(교장 김태연)는 5월 22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사제동행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파크골프 및 지역사회 직업 현장 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양교육지원청의 '미래형 교육과정' 예산을 신청·지원받아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교실 밖 생생한 직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

를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사제동행 활동으로 파크골프를 체험하며 스포츠 관련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체 활동을 통해 함께 웃고 배우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도전의 경험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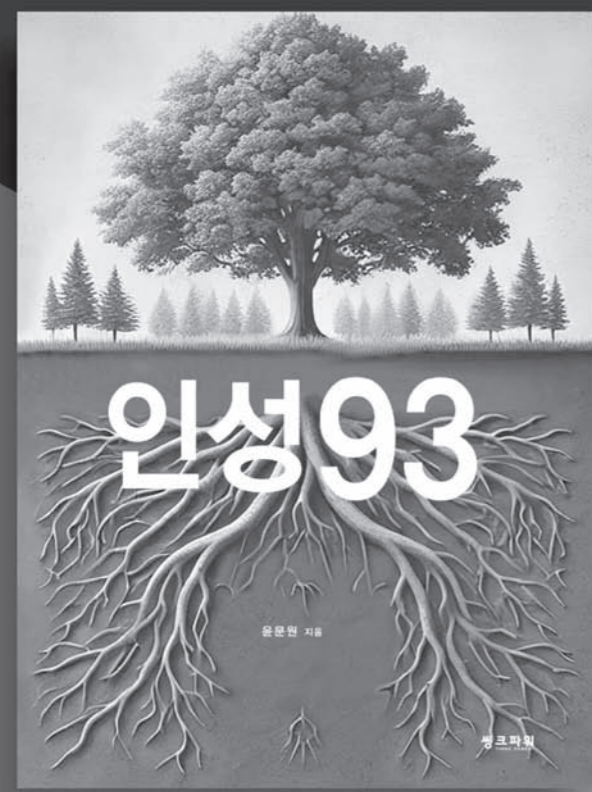
또한 지역사회 직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직업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역량과 파크골프 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6월 5일에 추가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에 참여한 장서빈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파크골프 배우고 지역의 직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제 미래와 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들과 함께한 강수영 교사는 "교실 안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넓은 세상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오늘 함께한 추억과 현장에서 반짝이던 아이들의 눈빛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 저자

출판사 : 싱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규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목포조리과학고, 목포의 맛 전국에 보여준다

'2026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서 금·은·동 등 대거 입상

목포조리과학고등학교(교장 안인술) 학생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금상·은상·동상 등 다수의 상을 휩쓸며 목포의 요리 실력을 전국에 알렸다.

전국의 셰프·파티시에·바리스타·조리 전공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대회에서 목포조리과학고 학생들은 마지팬 전시, 디지털 전시, 라이브 양식 3코스 등 3개 부문에 출전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부문별 입상 내역을 살펴보면 ▲마지팬 전시 - 금상 7팀(13명) 최유천·김서현·유가을·박시은·조아영·이예정·정명진·정하늘·김예은·최수경·이수지·박주환·임경희, 은상 6팀(12명) 양준수·



서인희·최고은·문서영·최은영·김수현·박소영·김민지·전라경·황현지·남기나·오진주, 동상 5팀 양혜원·이재아·김하늘·김채연·김조인·이지율·문화호·박현준·윤태현·배민서 ▲디지털 전시 - 금상 1팀(2명) 민한솔·이예지

▲라이브 양식 3코스 - 금상 2팀(10명) 박주환·이수지·양지훈·박규리·김승연·박정희·박성준·조아영·문찬율·김도훈, 은상 1팀(5명) 김한결·강하음·한수지·강예랑·안은혁, 동상 1팀(5명) 주성빈·이지아·김동민·김민준·황현지 ▲기관

장상 - 사단법인 조리기능장협회 장려상(라이브 양식 3코스 1팀 5명) 박주환·이수지·양지훈·박규리·김승연, 경기도교육감상(라이브 양식 3코스 1팀 5명) 박정희·김도훈·문찬율·박성준·조아영, 주철현 국회의원상 우수상(마지팬 전시 1팀 2명) 조아영·이예정 등이다.

학교 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박영주 선생님(조리부장), 홍명성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이루어낸 결과"라며, "대회 기간 내내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하고 늦은 시간까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교장·교감선생님과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목포조리과학고의 이번 눈부신 성과는 '조리명문고'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후배들에게도 꿈과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는 값진 계기가 되고 있다.

이승민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교육청, 교원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10개 강좌 구성... 강좌별 참여 인원 총 511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김천홍)은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원의 다문화 감수성과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이론 5개, 실습 4개, 체험 1개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강좌별 참여 인원은 총 511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 국적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은 약 4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구가 구성원도 약 20만 명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장기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면서 학생들은 학교 졸업 이후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현장 변화도 뚜렷하다. 최근 5년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13.6% 증가했다.

특히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은 22.3% 늘어나 학교 현장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 학생 100명 중 약 3명은 이주배경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학생은 남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 9% 이상 밀집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전역이 다국가·다언어 학생이 공존하는 '고다양성 사회'로 변화하면서 특정 학생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상호문화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을 특정 학생 대상의 적응 지원 중심 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교육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이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다문화사회를 '관리 부담'이 아닌 '미래 사

회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론·실습·체험을 결합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수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별 이수제'를 도입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중·고등학교 교원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교육은 일부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민교육"이라며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차이를 갈등이 아닌 배움과 공존의 가치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병성 기자 kbs@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사 고충 청취 지원방안 논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정담회... '고(古)고(GO)버스' 체험학습 새 모델 제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은 지난 5월 26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라운드 테이블(정담회)'을 개최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최근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331개교 가운데 407개교로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1150개교(86%)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실시 학교 수가 598개교(99%)에서 156개교(26%)로 급감했으며, 학교급이 낮고 저학년일수록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5월 실시된 초등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사의 90%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정담회에서 관내 초등교사들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안전사고 책임 및 법적 보호체계 강화 △예산 및 보조 인력 확보 △업무 간소화 방안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책무성 △지속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모델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현장체험학습의 새로운 모델로 '성북강북 역사탐험 고(古)고(GO)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사 현장지원단과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한 4개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이 직접 설계하는 '내맘대로 코스'를 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현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사업은 체험학습 예산 지원과 버스 임차 계약 대행, 문화해설사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관계회복 중심 예방활동 강화... 경찰과 함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2026학년도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 사업과 연계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대화와 이해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슬로건 현수막과 어깨띠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등굣길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스마일 키킹을 배부한다.

스마일 키킹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는 관계의 시작을 상징하며, 갈등을 배려와 소통으로 해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5월 26일 서울남산초

등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용강중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 서울용문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남대문·혜화·용산·종로·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규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일수록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중부 관내 모든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성 기자 kbs@

경기교육청, '온-드림 진로 수업 체인저' 본격 운영

초·중·고 30회 공개수업... 교사 진로교육 역량 강화·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경기교육청은 5월 28일 학교 진로연계교육 활성화와 교사의 진로교육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진로 수업 실천 교사단 '온-드림(On-dream) 진로 수업 체인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드림 진로 수업 체인저'는 '꿈을 밝히는 진로 수업을 온전히 드림'이라는 의미를 담은 수업 실천 교사단으로, 지난 4월 출범한 경기진로교육지원단 수업지원 분과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진로 수업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교사단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우수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실천 중심 교사단을 구성했다.



경기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별 10회씩 총 30회의 공개수업을 운영한다. 공개수업은 학생 맞춤형 미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춰 ▲다 다름!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 ▲우리 마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인공지능(AI)과 질문 활용 나만의 진로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다.

경기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로연계 수업 모델 발굴과 현장 보급 지원을 강화해 진로연계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온-드림 진로 수업 체인저' 운영을 통해 교사의 진로연계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성 기자 kbs@

양평교육지원청, 역사·생태 체험교육

중학생 12명 참여 울릉도·독도 탐방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울릉도·독도 탐방'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우리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역사와 자연, 생태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배우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탐방에는 양평중학교와 용문중학교, 지평중학교 학생 12명을 비

롯해 지도교사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독도 입도 체험과 함께 울릉도의 화산지형 및 해양생태를 탐방하고 역사·문화·생태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독도경비대 위문 활동과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박물관 관람, 나리분지 및 해양지질 답사, KIOST 생태체험관 탐방 등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울릉도의 생태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별 미션 활동과 독도 숲 초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탐방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스스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과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울릉도의 화산지형과 해양환경을 탐구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독도 수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평교육지원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전답사와 안전 컨설팅, 교사 및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김병성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문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복지시설 / 경로당
서울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중평군 신동리 경로당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COMPANY: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1899-0971
Tel: (031)941-0970
Fax: (031)949-8445
ADDRESS: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티에프메디칼(주)

경기교육청, 전국소년체전 메달 271개 결실

금 87개·은 93개·동 91개로 전국 최고 성적... 학생선수 지원 중심 정책 성과

경기도교육청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기도 학생선수단이 금메달 87개와 은메달 93개, 동메달 91개 등 총 27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5월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학생선수단은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기록하며 학생 체육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학생선수들과 지도자의 꾸준한 노력, 학교와 학부모의 지원, 현장 중심 체육 정책 추진, 도교육청과 도체육회·종목단체 간 협업체계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지원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와 훈련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또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종목에서 고르게 메달을 획득한 점도 주목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를 학생선수

지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참가 학생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며 안전과 성과 두 측면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김동권 과장은 "학생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승패를 떠나 꿈을 갖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고양교육지원청, 초등보육전담사 대상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중심 운영... 안전한 돌봄교실 환경 조성 강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은 관내 초등보육전담사 212명을 대상으로 5월 21일과 26일, 28일 3일간 고양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산소방서 구급대

협조로 진행했으며 돌봄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초등보육전담사의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방과 후 운영되는 돌봄교실 특성을 고려해 오전 시간대에 실시됐다. 또 3일간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해 참가자 전원이 직

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고양화초등학교

김영숙 초등보육전담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초등보육전담사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나서

영등포경찰서·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 예방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5월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여진용),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예방교육 강화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 운영 등 전문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신변보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예방 캠페인과 학교 방문 교육 등 선제적 예



방활동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자 심리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과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협약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의심 학생 조기 발견과 유관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

고,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해 사안 발생 시 예방부터 수사, 보호, 회복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환용 교육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클릭이 학생의 인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폭력"이라며 "예방과 대응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경찰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방관자도 되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여주 북내초 도전분교장, 주주팍서 생태체험학습

생명 존중·생태 감수성 함양, 유기동물 교감·지역 특산물 활용 체험활동

경기도 여주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장은 지난 5월 27일 여주 지역 체험농장 주주팍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교감 및 생태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과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야외와 실내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초식동물 먹이 주기와 유기견 교감 활동에 참여했다. 실내에서는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앵무새 등 소동물과 유기묘를 가까이에서 만나며 동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여주의 대표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를 활용해 고구마 경단을 직접 만들었다. 이어 자선들이 만든 간식을 강아지들에게 주며 동물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유기묘들의 공간을 찾아 교감하며 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체험의 추억을 담은 '나만의 액자 만들기' 활동에도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상처받은 유기묘들을 보며 앞으로 동물을 더 아끼고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4학년 학생은 "직접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우리 지역 특산물로 만든 경단을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장 교장은 "이번 주주팍 생태체험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실 밖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내초 도전분교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이천제일고, 영농학생축제로 금상 3개 등 우수 성과

학생 10명 출전 전원 입상... AI 기반 미래농업 인재 역량 입증



경기도 이천제일고등학교(교장 손응태)는 학생 10명이 '제62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2026 FFK 영인대회)'에 출전해 금상 3개를 포함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5월 28일 밝혔다.

이천제일고 학생들은 평소 주 3회 이상 진행한 수업과 실습을 바탕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전공경진 분야 조정 종목에 출전한 3학년 조정원예과 이○○ 학생과 실무경진 분야 농식품 조리 종목에 참가한 3학년 식품가공과 최○○ 학생, 이○○ 학생은 각각 금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인정받았다.

수상 내역은 ▲전공경진 분야 조정 종목 금상 이○○(3학년 조정원예과) ▲실무경진 분야 농식품 조리 종목 금상 최○○(3학년 식품가공과) ▲실무경진 분야 농식품 조리 종목 금상 이○○(3학년 식품가공과) ▲전공경진 분야 식물자원 종목 은상 김○○(3학년 조정원예과) ▲전공경진 분야 식품가공 종목 은상 김○○(2학년 식품가공과) ▲전공경진 분야 조정 종목 은상 유○○(1학년 조정원예과) ▲과제이수 분야 경영(공동) 종목 은상 김○○, 유○○(3학년 식품가공과) ▲축제 분야 FFK 골든볼 종목 은상 김○○, 유○○(2학년 농림토목과) 등이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병선 기자 kbs@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즐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자유의 숲'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항균
포즐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청소년박람회 체험부스 인기

나만의 작은 테라리움 만들기·국궁과 천체관측 접목한 포토존 관람객 큰 호응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운영 대표 박수영)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한민국의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특색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은 이번 박람회에서 '미래를 심고(Farm), 꿈을 찾고(Star), 목표를 쏘다(Bow)!'라는 주제 아래,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채로운 청소년 맞춤형 체험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박람회 1일자 28일 오후에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 전라남도 강위원 경제부지사, 여수시 정현구 부시장, 순천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이 직접 연합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체험부스는 스마트팜 기기를 활용한 '나만의 작은 테라리움 만들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미래 농업 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를



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수련 활동을 기획하고 이끄는 국가공인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 직업 소개로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

특히, 국궁과 천체관측을 접목한 특별 포토존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관람객들은 전통 국궁 복장을 착용하고 활을 들거나, 천체망원경을 배경으

로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박수영 운영대표는 "여행을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 여가 활동과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부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개막한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멘토 특강 ▲청소년 북 콘서트 ▲전국 청소년 대토론회 ▲청소년 디지털콘텐츠 및 합참댄스 경연대회를 비롯해 278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 천사의학교 윤소연 교장의 끝없는 아이들 사랑

"학생별 특성·장애 정도 따라 세심한 지도 필요하지만 교사 수·보조 인력 부족"

부산에 특수학교는 외곽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대체로 많다. 하윤수 前교육감은 아이들의 통학시간이 너무 길어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특수학교를 외곽에서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으로 옮기는 정책을 펼쳤고 김석준 교육감도 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 사하구 외곽에 위치한 천사의학교(교장 윤소연)가 그중에서도 돋보인다. 진성학원은 2001년 1월 20일 특수학교인 부산천사의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3월 2일에 유치부 과정 3학급의 특수학교로 개교했다.

부산천사의학교 발달지체 영아반은 기본 생활능력 신장, 탐색과 표현의 능력 향상, 양육자와 발달지체 영아 간의 관계형성, 발달지체 영아 자신의 존중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유치부는 언어생활, 사회생활, 탐구생활, 건강생활, 표현 생활 영역에서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교원 조직, 지역사회와 실질 및 특수성,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특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젊고 활기찬 윤소연 교장을 필두로 16명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하나의 몸이 돼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과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급식실의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과 직원들의 건강과 또한, 영양식단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고, 오래된 건물임에도 흡연을 데 없이 공간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어 윤소연 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윤소연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학급 수와 학교시설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한 학급에 많은 학생이 배치돼 개별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는 학생별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지만 교사 수와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 통학의 어려움이다. 특수학교는 지역별 편차가 커 장거리 통학 학생이 많다. 통학 버스 부족이나 긴 이동 시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증 장애 학생은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문제이다. 학교 신설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

교권침해·악성민원 대응 실무형 지침서 출간

인하부중 김창완 교감,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 현장 대응 매뉴얼 제시

최근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민원이 전국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김창완 교감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대응 지침을 담은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가 5월 15일 출간해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도서는 교사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학교 조직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형 지침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자료라는 평가가 나온다.

책은 ▲교권침해의 유형별 사례 ▲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절차 ▲학교 관리자 대응 체계 ▲법적 보호 장치 ▲민원 기록 및 보고 방법

▲교사의 심리적 소진 예방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폭언, 반복 민원, 무리한 요구, 온라인 민원, 아동학대 신고 악용 사례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 외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으며 심리적·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 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자료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김창완 교감은 "많은 교사들이 악성민원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몰라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경

우가 많다"며 "이번 도서는 교사 혼자서 아닌 학교 시스템 차원의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도 "실제 사례 중심이라 현실적이다", "신규 교사와 관리자 모두에게 필요한 자료"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가 단순히 교사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공 교육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육행정 전문가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은 안정적인 수업 환경 조성과 직결된다"며 "현장 대응 매뉴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완 교감은 2025년 하반기부터 교권침해 악성 민원관련 실례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교권침해



악성민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1천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의논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침해 악성민원 관련해 참여 및 도움을 받고 싶은 교사는 kcwinha@naver.com 으로 요청해 안내를 받으시면 된다.

한편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는 전국 주요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윤연 기자 lyy@

구본희 반려詩選

**당신은 당계의 대가라며
아내는 불평한다.**

**아직 어리니,
유치원 가면,
학교 가면...
반자리도 앉은 약속들.**

**자전거 타기,
공놀이, 캠핑, 놀이공원.**

**돌아보니
바뀐판 당계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미안한 젊은 날,
나는 나만을 사랑했다.**


내리사랑이라 했던가.

당계가

**손주가 생기면
그때는 꼭 지키리라,
또 다짐한다.**

그보다 아내가 먼저.

**오늘도
아내의 한마디가
조용히
가슴을 후린다.**



■ 구본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김준식 칼럼

한·독 미래 교육의 만남: 기술적 수용성과 윤리적 성찰의 글로컬 상생을 향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파스한 봄 햇살이 깊숙이 내려앉은 이 계절, 전라남도과 독일 브레멘·니더작센주가 미래 교육이라는 가치 아래 국경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양국 교육 교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원(IETI)과 독일 브레멘주교육연구원(LIS)·니더작센주 교육전문가의 교원 공동 연수를 앞두고,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교사들이 뜻을 모아 연수를 준비해 왔다.

필자 또한 양국 교원들의 교육적 고뇌가 담긴 발제문들을 한국어와 독일어로 다듬고 살피는 과정에 동참하며, 비록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만큼은 내내 뜨거웠음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아이들을 가슴에 두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투입하는 정성과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의 수많은 손길이 모여 시작된 헌신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맞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글로컬

(Glocal) 교육의 진정한 서막을 목도하게 된다.

이 역사적인 만남이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교육 리더들과 실무자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 전남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해안,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한·독 공동 연수라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교육연수원장과 연수기획부장, 그리고 교육연구사의 교육적 진심이 맞물려 이 경이로운 무대가 완성되었다. 형식주의와 일회성 퍼포먼스를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교사와 학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들의 교육 철학은 전남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 전반에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글로컬 실천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양국 교육의 만남은 '기술 수용성'과 '윤리적 성찰'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교류의 핵심 축인 '민주주의 교육', '지

속가능발전 교육(ESD)',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이라는 글로벌 3대 의제는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마주한 문명사적 위협이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미래 세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과 전남의 교육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흡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적 수용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반면 독일의 교육은 디지털 전환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주권, 그리고 강력한 기술 윤리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인간 중심의 철학적 브레이크를 밟아왔다.

따라서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과, 방향과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독일의 윤리적 교육이 만난 것은 단순한 친선을 넘어 미래 문명을 선도할 상호 보완적 융합의 계기다.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 디지털화가 가져온 편리함 뒤에 숨은 인간 소외 현상, 그리고 알고리즘 의존으로 인한 비판적 사고 저하를 깊

이 염려해 온 독일 교사들의 고뇌는 대한민국 교육이 쫓던 속도전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반대로 한국의 역동적인 디지털 수업 모델과 담양 관내 학교에서 펼쳐진 생애·역사·진로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은 독일 연수단에게 미래 교육의 실질적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주목할 만하게도 교류 첫날, 담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주제의 현장 수업은 양국 교육자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선사했다.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룬 이 수업에서, 독일 연수단은 한국 초등학생들의 높은 역사적 문제의식과 성숙한 태도에 큰 감동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처럼 국경을 초월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뜨겁게 공유했던 상생의 현장 속에 존재한다.

이번 한·독 교원 교류는 단순한 지역 단위의 연수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거버넌스를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선구자들과 행정 담당자들에게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교육 교류에 대한 지속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미래 교육의 도전과제는 개별 지역이나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정책 담당자들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이 글로벌 무대와 중단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용 예산을 확보하고 수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술' 중심의 디지털 수렴 정책에서 '철학과 윤리' 중심의 가치 정책으로 확고하게 대전환해야 한다.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속도라는 수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독일 교육이 보여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윤리,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AI 리터러시'를 대한민국 교육과정 전반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기술을 다루는 테크니션을 넘어, 기술의 시대에 인간다움을 사수하고 다스리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일회성이자 일방향적인 교원 연수를 넘어선 '글로벌 교육 공동체 및 학생 교류 모델'의 정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의 만남과 사유의 시간은 반드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상호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세계의 학생들과 민주주의와 인권, 디지털 윤리를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의 보편성을 잇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밀어주어야 한다.

이번 교류는 현장 리더들의 교육적 해안과 보이지 않는 실무진의 땀방울이 맞물려 일궈낸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역동적인 출발점이다. 참된 교육은 외형적 형식을 넘어 내실 있는 가치를 채우는 일이며, 교사의 뜨거운 가슴을 통해 아이들의 숨결을 온전히 느껴야 하는 본질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이번 한·독 교류가 전남의 대

지 위에 가꾸어 놓은 글로컬 상생의 불씨를 이어받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거대한 디지털 해일 속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단단히 쥔 채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 김준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독일사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교육, 독일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만나다」(포스텍출판문명연구원, 소명, 2025) 등이 있다.

- ◇ 교육연합신문 논설위원
-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이사 겸 인문교육위원장
- ◇ 2024 칼만 해외석학(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아헨공과대학교
- ◇ 前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 ◇ 前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과학인재 양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 前 한국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부위원장

인천 학익고, 융합형 핵심 인재 만든다

2026학년도 AI 중점학교 프로그램 운영... 창의·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인천 학익고등학교(교장 김경심)는 2026학년도 'AI 중점학교' 운영의 하나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채로운 디지털·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월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익 교육 가족들의 미래 기술 진속도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사와 학생의 AI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됐는데, 우선 교사 대상 에듀테크 기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최신 에듀테크 플랫폼과 인공지능 교수 학습 도구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며 미래형 공교육 혁신을 선도할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인 C언어를 습득하고 이를 하드웨어와 결합

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을 진행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창의적 공학 설계 능력을 길러줬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편집 및 콘텐츠 생성 툴을 활용한 학생 AI 활용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감각적인 미디어 영상으로 직접 구현해 내는 미래형 디지털 창작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들이 탐구 과제 설정부터 결과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학익고만의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말까지 지속되는 AI 중심 학교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익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대중예술고, 특목고 지정 학교설명회 성료

전국 최초 공립 대중예술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 특화 프로그램 이해 도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교장 유상범)는 5월 21일 공연실습장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대중예술 분야 공립 특수목적고 지정(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에 따른 학교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부터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되는 변화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학교의 교육과정과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홍보 영상 시청과 학교 소개를 통해 특목고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 사항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부 전체 설명회 이후 2부에서는 선착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연기에 예술과, 영화영상예술과 등 학과별 전공 실습실을 둘러보며 실제 교육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인천대중예술고에서 학생들은 학과별 다양한 무대 공연 및 영상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것이며, 학교는 사교육비 부담, 전공 실기 전문성 신장 등 정에 따른 주요 변화 사항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부 전체 설명회 이후 2부에서는 선착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연기에 예술과, 영화영상예술과 등 학과별 전공 실습실을 둘러보며 실제 교육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인천대중예술고에서 학생들은 학과별 다양한 무대 공연 및 영상

인천대중예술고에서 학생들은 학과별 다양한 무대 공연 및 영상

있어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전공 실습실을 직접 둘러보니 학교가 명실상부한 대중예술 분야 최고의 공교육 학교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교장은 "이번 설명회가 본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전국 최초의 공립 대중예술 특목고로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재능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하사대부중,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 탐방

학생 29명 참여 서울대 캠퍼스 곳곳 둘러보며 대학 생활 간접 체험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병문)는 지난 5월 12일 진로 활동의 하나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탐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대학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학탐방에는 2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탐방하며 대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며 대학의 학습 환경과 문화를 직접 살펴본 학생들은 평소 막연하게 느껴졌던 대학 생활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조별 멘토 배정과 자기소개 활동을 시작으로 캠퍼스 투어와 미션지를 활용한 학교 탐방 활동에 참여하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대학생 인터뷰와 조별 진로 멘토링에서는 서울대학교 미술학부와 소비자공학부 대

학생 멘토들이 실제 대학 생활 경험과 학과 선택 과정,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멘토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대학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 설계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며 미래에 대한 동기를 키울 수 있었다.

대학탐방에 참여한 박건우 학생(3학년)은 "평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며 나도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원하는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멘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진로와 공부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활동에 대해 박병문 교장은 "이번 대학탐방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보며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 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차이나타운, 글로벌 문화 교류 중심지로 도약"

'중국어체험센터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브랜드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차이나타운을 글로벌 문화 교류와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시 차이나타운 중국어체험센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14시 30분 인천 한중문화관 1층 전실에서 한·중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우리나라와 중국

의 문화적 가치 역할을 할 '중국어체험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국 형주시한국문화센터와 MOU를 맺고, 한중 문화교류청년단 표창 등을 진행했다.

인천시 차이나타운 중국어체험센터는 단순한 언어 교육 공간을 넘어 ▲AI 활용 중국어 및 ESG 환경교육 카테고리 확립 ▲한중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중 청소년 교류 활성화 ▲지역 관광 인프라 연계 마케팅 ▲요커를 사로잡

는 상인 맞춤형 교육 등 인천 차이나타운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핵심 거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먼저 준비위원회 고문을 맡은 잡코리아 창립자이며 조은시스템 명예회장 김승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 차이나타운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라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중국어체험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교류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설립자, 차이나북스 박용호 대표는 중국어교육 1세대인 퇴직교사들과 중국어교육모니터링단으로 "중국어로 교육 활성화에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가자"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계산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든 따뜻한 등굣길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이현주 교장)는 지난 5월 19일 이른 아침 교내 정문과 후문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고슴도치데이' 및 학생 참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며 따뜻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사랑과 존중이 살아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바

른 언어 사용과 금연, 학교폭력,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회 어머니 9명이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고,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직접 나눠 주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학생회에서는 금연, 학교폭력 예방, 바른 언어 사용,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주제로 한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구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사용과 공감의 중요성을 알렸고, 픽시 자전거 운행의 위험성도 전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여러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캠페인 활동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현주 교장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인성·생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교맞이 행사인 고슴도치데이는 이틀간 진행되며, 계산여고는 앞으로도 학생 자치활동과 학부모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교 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안용섭 기자 ays@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문의: 010.3398.7325
010.5204.8271



주식회사 베스트링크

S2B 물품번호
2025 0131 055 1212
2025 0131 055 1061
2025 0131 055 0333



최고의 장비와 최저의 비용,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음향

- 이벤트 음향
- 소형 음향
- 중형 음향
- 대형 음향

조명

- 이벤트 조명
- 중소형 무대조명
- 대형조명

무대

- 이벤트 무대
- 소형 무대
- 중형 무대
- 대형 무대

영상

- 빔 프로젝터
- LED 영상
- 촬영 및 중계

부산체육중, 전국소년체전 금 16개 새 역사 썼다

부산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비 예산 21억 편성

개교 이래 최고 성적 경신... 다관왕·신기록·MVP 배출하며 체육 명문 입증

부산체육중학교(교장 윤강)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개교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다.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성과(금메달 10개·총 메달 31개)를 1년 만에 넘어선 것으로, 부산체육중학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명문학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체육중은 역도·조정·근대3종·사이클 등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다관왕과 최우수선수(MVP)를 대거 배출했다.

역도에서는 여중부 -81kg급 왕서영이 인상 99kg, 용상 109kg, 합계 198kg을 기록하며 인상과 합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3관왕에 올랐다. 남중부 -51kg급 김민승도 인상 92kg, 용상 115kg, 합계 207kg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여중부 +81kg급 조서은은 용상 금메달, 합계 은메달, 인상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정 종목에서는 신이린이 여중부 싱글스킬 금메달과 함께 조정 종목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으며, 송지호·최수희 조는 여중부 더블스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근대3종에서는 경로겸이 맹활약했다. 남중 개인전과 단체전(경로겸·김진우·김주원·김지성)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해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해 근대3종 종목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사이클 종목에서는 이난아가 개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지난해까지 육상 원반던지기 선수였던 오슬우는 레슬링 자유형 80kg급으로 전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금메달을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백하민은 에어로빅 합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황지빈과 함께 출전한 에어로빅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양궁 박규필(은3·동1), 유도 이보은(은), 탁구 강정민(동), 레슬링 김윤성·노현서·노효승·김서준(동) 등도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육상 800m 김은유와 장대높이뛰기 조성후 역시 동메달을 추가하며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윤강 부산체육중학교장은 "지난해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든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노력과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부교육감 이강국)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업업무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5월 26일 발표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여름철 폭염 대비 대책을 한데 모은 이번 계획은 학교(기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부산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실내의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 4월 확정된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6억 3천만 원에 올해 예산 4억 3천만 원을 더해 총 20억 6천만 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은 이동형 냉방기·제빙기·개인용 보냉장구 등을 비치하는 데 활용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폭염작업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안내에도 힘썼다. ▲시원한 물 제공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온·습도계 비치 등 비뚤한 법령에 따른 조치 사항 ▲체감온도 31도 및 33도 이상 시 조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학교(기관) 현장에서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급식관계자', '환경실무사'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별도 지침을 종합계획에 담아 작업현장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안내했다.

부산교육청은 현장에서 종합계획의 예방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병행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예방 대책을 미이행하여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응급조치 방법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설명했고, 작업장에서의 조치 사항도 계획에 실었다.

또한,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팀'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보고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했다.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시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총괄하며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종합계획은 폭염기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에도 모든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 월계수스포츠클럽, 근대2·3종 단체전 석권

월계수스포츠클럽·부산체육중·고등학교 꾸준한 육성의 결실

부산 월계수스포츠클럽(대표 고문석)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근대2종·근대3종에서 단체전 상위권을 휩쓸며 5월 23일 부산 학생 선수들의 지력을 보여줬다.

먼저 23일 열린 초등부 근대2종(수영 100m, 육상 1200m) 단체전에서는 박준현(봉학초 6, 교장 홍용신), 이유건(청동초 6, 교장 권경우), 강민준(대평초 5, 교장 심주욱)으로 구성된 부산 선수단이 서울선발(1위), 경기선발(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24일에 열린 초등부 근대2종 계주(자유형 50m3명, 육상 1200m3명)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당당히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등부의 활약도 빛났다. 부산체육중학교(교장 윤강)는 안정재, 최주혜 지도자의 지휘 아래 경로겸(3학년), 김진우(3학년), 김주원(2학년), 김지성(2학년) 선수가 출전해 근대3종 중등부 단체전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근대3종 계주에서도 경



로겸, 김진우, 김주원 선수가 2위에 올랐으며, 중등부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부산체육중학교 경로겸 선수에게 돌아갔다.

월계수스포츠클럽 박정현 지도자는 "서울·경기권에 비해 선수층이 얇고 선수 수급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책임감 있게 지도해온 결과가 이번 대회에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부

산체육중·고등학교와 협력해 지역 근대2·3종 발전과 우수 선수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윤강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 훈련하는 월계수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시설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스포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윤영 기자 juy@

부산동성고, 미래형 융합교육 '부라보핏' 실천

본교 및 황령산 생태숲 일대서 389명 참여 '2026학년도 1학기 걷기 행사' 성황

부산동성고등학교(교장 김희석)는 지난 5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본교 및 황령산 생태숲 일대에서 전교생 324명, 학부모 20명, 교직원 45명 등 총 389명이 참여한 '2026학년도 1학기 걷기 행사(부라보핏)'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동성고가 추진 중인 3대 특색사업인 ▲AI·디지털 수업 혁신(AI중점학교·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탐구·영재 성장 프로그램(영재학급·메이커교육·해양생태교육), ▲전인 성장 지원(건강체력 증진 연구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량과 가치를 총망라해 하나의 완벽한 '미래형 융합교육 프로그램(Bravo-Fit)' 모델로 녹여낸 결실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에서는 첫 시도라는 큰 의의가 있으며 이날

함께한 교육공동체는 황령산 생태숲 내 '김소월 시와 함께하는 길'을 걸으며 문학 감상, 식생 관찰, AI 기술 기반의 숲속 제작을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실천하는 독창적인 인문학·체육·테크 융합 프로그램인 '오월의 숲, 소월의 노래' 등을 성황리에 선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제한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과 신체활동의 조화로운 병행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체육 교육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산(Busan)의 지역성, 응원(Bravo), 건강(Fit)을 결합한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 '부라보핏(Bravo-Fit)'을 실천해 학생들의 신체적 활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모 봉사단

체 동아리가 전 과정에 동행해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전반의 소통과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며 실천 중심 연구학교의 모범을 보였다.

행사 참여 학생들은 '김소월 시와 함께하는 길'을 걸으며 인문학 적 감성을 채우는 동시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한 실시간 신체·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술적 깊이를 더한 다학제적 교과융합 탐구활동을 전개했다.

체육·과학 교과와 연계해 보행 전후의 생화학적 심박수 변화를 정밀 측정하고 경사도 변화에 따른 보행 역학적·운동생리학적 효과를 분석했으며, 수학적 접근을 통해 생태숲 보행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경로 분석 모델링을 도출해 냈다.

학교 측은 이러한 탐구 활동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도출된 분석 모델링을 기반으로 향후 AI를 활용한 전용 앱(APP)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학교 특색사업인 영재학급 동아리 신활동으로 연계해 후속 연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에는 학급별 결과물 중 우수작을 모아 학교 강당인 지성관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동성고등학교 김희석 교장은 "이번 부라보핏은 학생들의 인성, 체력, 창의력이 일반 교과 지식과 완벽히 결합된 미래형 융합교육의 진수를 보여준 뜻깊은 결실"이라며,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전인적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정현 기자 ljh@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지능형과학실 조성

설계부터 가구, 기자재 구축까지 ONE-STOP 솔루션 제안

미래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와 스마트한 가구, 첨단 기자재를 하나로 연결하여 창의적이고 안전한 과학실을 완성합니다.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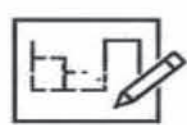
가구



기자재



VR 실험·체험 도구 세트



맞춤형 공간 설계
교육과정과 실험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통합 솔루션 제공
인테리어, 가구, 기자재를
원스톱으로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환경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한 실험 환경 구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



월드퍼니처 부산진구사업단

051.711.14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91, 서면 동양빌 1104호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 '톡톡'

충북교육청, 3학년 학생 해외 체류 현장 실습 거쳐 해외 취업까지 성과 이어져

충청북도교육청은 추진 중인 '충북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성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전공 분야 직무 능력과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고, 현장실습(인턴십)을 거쳐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충북교육청은 지역과 학교,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 어학연수나 기술 체험 중심이 아닌 실제 취업 연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출국 전 국내에서 집중 어학 교육과 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 현지 어학연수와 전공 분야 직무 실습에 참여하며, 이후 현지 취업으로 연계된다.

올해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주 상업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등 3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하반기에는 3개 사업단 소속 3학년 학생 총 20명이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오는 11월부터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로블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 호주·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 등 3개 사업단 운영을 시작으로 직업

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2021학년도를 제외하고 사업을 이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26개 사업단, 237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2025학년도 참여 학생 32명 가운데 21명(65.6%)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으며, 2024학년도에 참여한 충주상업고등학교와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사업단에서는 학생 각 8명씩 총 16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뉴질랜드 취업에 성공한 박인호(충주상업고, 2026년 졸업) 학생은 "글로벌 현장학습은 단순한 해외 경험을 넘어 조리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어학·현장실습 지원 덕분에 낯선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직접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한 경험이 큰 성장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정문희 중등교육과장은 "낯선 환경에서도 도전 정신으로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룬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충북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안전한 해외 인턴십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 현장과 손잡다

미래협력 유아교육공동체 출범... 내부위원·학부모 등 총 31명 구성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연숙)은 29일 원내 교사협의회실에서 '미래협력 유아교육공동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협력 유아교육공동체는 유아교육진흥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이다.

유아교육진흥원 내부위원과 유치원 원장·원감·교사, 교육전문직원, 전문분야 외부인사, 학부모(꿈이음 지원단)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협의회에는 26명이

참석했다.

유아교육공동체는 ▲연수지원분과 ▲체험지원분과 ▲현장교육지원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연수지원분과는 현장 수요 기반 연수과정 기획과 운영 지원, 체험지원분과는 유아·놀이 중심 체험 프로그램 개선과 안전성 강화, 현장교육지원분과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개선 등을 담당한다.

운영 기간은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이며, 참석자들은 공동체 운영 방향과 분과별 역할을 공유하고 유아교육 지

원 사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이번 공동체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연숙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유아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연수·체험·현장교육 지원을 유기적으로 운영해 충북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유아의 삶 속에 예술 불어넣는 교육 추구"

충북교육청, 유치원 교원·교육전문직원 250여 명 대상 역량강화 연수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메리다 컨벤션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유아가 놀이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연수에서는 부산대학교 김지윤 교수가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유아예술교육이 작품을 만드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생활 속에서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연수에서는 가온누리교육연구소 홍표선 소장이 '애쓰지 않아도 스며드는 생활지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홍 소장은 유아의 행동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가보다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교사와 유아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 중심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교육은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며 교사의 전문성은 유아의 배움과 성장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유아가 삶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따뜻한 관계 안에서 정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청소년기 흡연 위험성 알려요"

영동고, 학생 참여형 흡연 예방 캠페인 운영



영동고등학교(교장 박남규)는 29일 보건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으로 아침 등교 시간 교내 정문에서 학생 참여형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기의 흡연 위험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과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보건교사와 보건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더했다.

보건동아리 학생들은 흡연 예방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흡연과 건강에 관한 O.X 퀴즈를 진행하고, 정답 설명과 함께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했다.

또한 보건교사는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활량 측정을 실시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캠페인 참여 학생들에게는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금연밴드를 배부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흡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를 기획한 보건동아리 한 학생은 "친구들이 O.X 퀴즈와 폐활량 측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미평여자학교, 다양한 진로 체험 제공

충북 진로교육원, 학생 대상 포용적 진로체험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원장 조순진)은 29일 미평여자학교 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직업을 연계한 포용적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학생들이 여러 직업 세

계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진로교육원 보건의로 마을에서 응급의학과 물리치료,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등 보건 의료 분야 직업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직업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

히 사전·사후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마을별 지원 인력을 배치해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험활동 운영에 힘썼다.

조순진 진로교육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 중심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보리, 현미 쌀국수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은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왕지 버스킹’으로 등갯길에 꿈을 심다

순천왕지초, 6학년 학생들 자발적 기획·열정이 빛어낸 아침 공연

순천왕지초등학교(교장 전희)의 아침 등교 시간이 학생들의 환호와 음악 소리로 가득 찼다. 5월 28일 등갯길, 순천왕지초 강당에서는 6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한 ‘왕지 버스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교사 중심의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학생회와 지원자들로 구성된 ‘버스킹 운영단’은 이른 아침부터 무대 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등교하는 관람객들의 질서 유지와 안전 지도를 담당하며 원활한 행사를 이끌었다.

특히 행사의 꽃인 사회자 역시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됐다.



이날 무대에는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총 4팀의 공연팀이 올라 그동안 갖고 있던 램, 동요, 가요, 댄스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등갯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학생이 모여 친구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

으며, 어느새 학교 전체가 하나 되는 소통의 장으로 변했다.

공연에 참여한 6학년 김OO 학생은 “지금까지 6학년 친구들에게만 보여주었던 무대를 전교생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 정말 설렘이었다”며,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표현해보니 스스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희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무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며, “이번 버스킹이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왕지초는 앞으로도 학교교육목표3 문화 향유 교육을 통한 문화 예술을 즐기는 교양있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삶과 연결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무안희망중, 5·18 정신 교실 속 실천으로 잇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주간 운영 및 광주 5·18민주묘지 현장체험학습

무안희망중학교(교장 신원호)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2026.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 지역단위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18 기념주간을 운영하고, 5월 2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기념주간 동안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 탐구, ‘소년이 온다’ 필사, 5·18 3행시 쓰기, 관련 그림책 읽기와 독서록 작성,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5·18을 단순한 역사 지식으로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학, 창작, 독서, 탐구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자기 언어로 표현했다.

또한 무안희망중학교는 5·18의 정신을 교실 안 실천으로 확장하는 활동도 운영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아침 조회시간에는 ‘경청과 존중’의 1분 대화법을 실천했다. 학교생활 속에서 받았던 다정한 말과 행동을 기록하며 공동체 안의 신뢰와 배려도 돌아보았다.

이러 5월 29일에는 전교생 285명과 인솔 교직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5·18민주묘지 및 패밀리랜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추모관을 관람하며 5·18민주화운동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이후 반별 단합

활동과 체험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의 태도를 기르는 시간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보며 민주주의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희망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고,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양길 기자 2580news@daum.net

나주이화학교, 장애학생 국제적 소통 경험 확대

일이나리아마지원학교와 온라인 화상 플랫폼 활용 국제교류 활동 실시

전남 나주이화학교(교장 한보경)는 5월 21일 일본 나가노현 이나리아마지원학교와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류는 장애학생들의 국제적 소통 경험 확대와 문화 다양성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국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교 소개와 일상생활, 전통문화, 좋아하는 활동 등을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활용해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단한 인사말과 표현을 서로의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온라인 화면을 통해 손을 흔들고 웃으며 소통하는 모습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본 친구들과 이야기해 즐거웠고 직접 일본에 가서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글로벌 경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이화학교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일본 이나리아마지원학교와 정기적인 온라인 수업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양한 공동 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국제적 소통 역량과 세계시민 의식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화순도곡중, 온 교정이 생태 배움터로 변신

기후 위기 대응·생태감수성 함양 ‘자연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화순도곡중학교(교장 임은정)는 지난 5월 1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자연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설렘과 어울림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비전 아래 기획된 이번 행사는 교실을 벗어나 학교가 가진 친환경 전원학교의 이점을 극대화한 현장 중심 탐구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전문 농학사(임원택 강사)를 초청하여 교정 내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의 이름 및 생리적 특징을 알아보는 실의 강의로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직접 교정을 거닐며 식물과 교감하고, 학교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이름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을 통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친환경적 심성을 길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년별 교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과



통합형 융합 수업’으로 진행돼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

1학년은 체육·사회 교과를 통해 ‘그린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고 학교 상징인 향나무(교목)와 철쭉(교화)의 의미를 학습했으며, 2학년은 과학·국어 수업과 연계해 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조사하고 홍보물을 제작했다. 3학년은 영어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영어로 발표하고, 수학 교과를 통해 꽃잎과 나뭇가지

의 배열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찾아내는 등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은정 교장은 “우리 학교가 가진 아름다운 생태 환경은 아이들의 주도성과 인성을 키우는 훌륭한 교과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교과 연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을 상시화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여수 진성여고, K-문화 알린 태국 문화교류 성료

전공 살린 ‘K-구급키트’와 태국어 K팝 공연으로 현지 호응 휩쓸어

전남 여수 진성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호) 보건간호과 2학년 학생 7명이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주관 ‘2026 청소년미래대전 프로젝트 with AI’ 국외활동팀 자격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진행된 국외 문화교류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

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성여고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전공 특성을 살린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해 현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방문 기간 학생들은 ▲전통 노래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한국 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K-컬처의 매력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보건간호과의 특색을 살려 현지 중·고등·대학생 눈

높이에 맞춰 준비한 ‘구급키트 만들기’ 부스는 실용성과 참신함을 동시에 잡아 단연 최고의 화제로 떠오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특별 공연 무대도 빛났다. 학생들은 1세대부터 5세대를 아우르는 K팝 댄스 메들리를 선보였고, 최신 인기곡을 태국어 버전으로 직접 준비해 현지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전북교육청,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수상... 지역업체 우선구매·계약업무 개선 성과 인정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S2B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7일 브리브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표창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기관별 이용 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을 종합 평가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기관 공로상, 2025년 개인 공로상, 2026년 기관 우수상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S2B 조달 건수 5만144건, 조달 금액 810억 2,8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5%p, 34.5%p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증가율로, '청렴계약 활성화'와 '지역업체 우선구매 정책'을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S2B에 전북교육장터 코너를 개설해 지역생산물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계약업무 운영 개선과 현장 지원 강화

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우수 성과도 이어졌다. 교육지원청 부문에서는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 부문에서는 전북해화학교가 각각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리공업고등학교도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직장 내 갑질없는 조직문화 조성

갑질 인식개선 교육 '역지사지' 통해 수평적 상호 존중 조직문화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수평적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맞춤형 갑질 인식개선 교육 '역지사지'를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창조나라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부서장, 장학관 및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지사지 역할극 기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전북교육청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갑질 예방지도'에 따른 현장 지원의 일환이다. 갑질 예방지도는 기관 및 학교 현장의 갑질 경험 수준과 조직문화 특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지역·기관별 위험요인과 취약 분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예방관리 지원 도구다.

전북교육청은 갑질 예방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개선지구·자율개선지구 기관을 지정, 지역별 예방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역지사지'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인 법령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행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갑질 상황을 역할극으로 풀어낸 방식이다. 참석자들은 관리자이자 직원의 역할을 바꿔 맡아 다양한 갈등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 느낀 감정과 생각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지사지 교육은 이날 본청 및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6월 15일 별 위험요인과 취약 분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예방관리 지원 도구다.

정 △6월 26일 김제교육지원청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갑질근절 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을 진행한 뒤 오는 11~12월 갑질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갑질 수준 변화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직문화는 관리자 한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달라질 수 있다. 관리자들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할 때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도 가능해진다"며 "갑질 예방지도에 따른 집중 개선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하이브리드 영어 수업'으로 미래 교육 선도

중등 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현장 정착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에듀테크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중등 영어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전주 치명자 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중등 영어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등 영어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인공지능(AI) 코스웨어·앱 등 디지털 도구와 협력·학습지 기반 등 아날로그 활동의 상호보완적 결합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 영어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양현고 오진희 수석교사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 코스웨어 활용 영어 수업-평가 연

계' 특강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사례 나눔이 이어졌다.

특히 △노트북LM을 활용한 '나만의 수업 루틴, 학습지로 말하다' △다양한 앱을 활용한 '바로 활용하는 가성비 수업 활동 팀' △인공지능(AI) 시대에 살아남는 'PPT를 활용한 영어 수업 루틴'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전문

성을 살린 '세계를 교실로 [프로젝트 BTS]',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 미시예에 따른 학교별 평가 규정 개정 안내 등도 이루어졌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하이브리드 영어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 누리도록 가교 역할 충실"

김용일 제24대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선출

제24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에 김용일 씨가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 학운협)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4대 회장으로서 김용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북 학운협은 도내 14개 시군별 학운협에서 선출된 회장 14명으로 구성됐다.

김용일 신임회장은 "학교의 실



성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은 물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이며,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학운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학생 도박중독 막는다

도박예방 선도교사 양성과정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29~30일 대전 예림인재교육센터에서 '2026년 도박예방 선도교사양성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위

탁·운영하는 이 연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법) 개정으로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되면서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도박예방 선도교사로 선정된 도내 교사 20명이 참여한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도박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으나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를 양성, 학교 도박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이해와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등 총 10시간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도박과 재정문제 △청소년 도박 문제 현황 및 이해 △회복사례 경험담 △청소년 도박중독

치료의 실제 △예방교육 교안 및 콘텐츠 안내 등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선도교사를 확보함으로써 교사 주도의 표준화된 도박예방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도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해 도박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마음이지(EASY)검사 활성화 선도교육청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마음건강 진단을 위해 개발한 '마음이지(EASY)검사 활성화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이지 검사는 정서·불안·대

인관계 등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로, 교사가 학생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 문항이 학부모(초등학생) 및 학생(중·고학생)에게 URL로 전송돼 응답과 동시에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

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달리 마음이지 검사는 필요시 상시 진행이 가능해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6월 중 공모를 통해 마음이지 검사 중점학교 50개교를 선정, 교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현장지원단 운영 및 전문상담교사·위(Wee)센터 상담인력 연수를 통해 마음이지 검사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태 기자 kh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KEVIC Professional Audio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은자(殷字)의 재발견

한자는 2,000여 년간 동양 문명의 핵심이자 일상의 도구였으나, 우리는 매일 쓰는 글자의 진짜 주인과 얼굴을 잊은 채 살아왔다.

오늘날 흔히 '한자(漢字)'라 불리는 이 문자는 사실 한나라 시대에 붙여진 이름일 뿐, 그 기원은 3,500년 전 상(은)나라의 갑골문과 금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적·고고학적 진실은 이 문자의 창제 주체가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인 '동이족(東夷族)'이었음을 명백히 가리킨다.

하지만 이 위대한 유산의 해석은 오랜 시간 왜곡되었다. 그 오해의 중심에는 서기 100년경 동한(東漢)의 학자 허신(許愼)이 집대성한 『설문해자(說文解字)』가 있다. 허신은 문자학의 권위자였으나,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갑골문과 금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소전(小篆) 위주의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한자의 근본 원소 곳곳에는 동이족만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풍습이

잘게 배어 있다. 대표적으로 '오래'를 뜻하는 '이(夷)'는 갑골문에서 '큰 활(大+弓)'을 능숙하게 다루는 문명인의 기개를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올리고 춤을 추며 신과 소통하던 제천 행사의 모습, 죽은 이의 영혼을 기리며 옥(玉)을 소중히 여겼던 장례 문화, 그리고 흰 옷을 즐겨 입으며 예의를 갖추어 무릎을 굽히던 생활 방식 등은 갑골문 속에 고스란히 박혀져 있다. 허신은 이러한 동이족의 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이미 변형된 글자 모양만을 보고 억지로 뜻을 짜 맞추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여러 개의 작은 '근본 원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정교한 퍼즐이다. 본서는 허신의 권위에 가려진 채 잊어버린 동이족의 원형으로 한자의 비밀을 검증한다.

원형성: 반드시 갑골문과 금문의 초기 자형에 부합해야 한다.

역사성: 반드시 동이족의 역사적 사실이나 선진(先秦) 시대의 문헌 기록에 부합해야 한다.

일관성: 모든 한자 부호의 해석은 일관되어 다른 글자에서도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한다.

합리성: 자형에서 파생된 뜻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계승성: 자형과 뜻의 변화 과정이 시대별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본서의 목적은 명확하다. 2,000년 전 허신의 실수와 화하족 중심의 역사관이 만들어낸 광범위한 오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동북아시아 문명의 시원인 동이족의 발자취를 추적함으로써, 비로소 한자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인 진짜 '은자(殷字)'의 의미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해석을 넘어,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원류를 되찾는 엄숙한 여정이다.

한자의 막힌 혈관, '홀태'와 '모래톱'으로 뚫다

한자(漢字)는 동양 정신의 뿌리이자 고대인의 삶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한자의 중추를 자처하는 중국의 해석서, 특히 허신의 『설문해자』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그 역동적인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말의 고유한 감각인 '홀태'와 '모래톱'이라는 열쇠를 통해, 한자의 잃어버린 원형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勿(물/물), 깃발이 아닌 '홀어내는' 동작의 형성

허신은 말 물(勿)자를 깃발이 세워진 모습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갑골문과 금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칼(刀) 사이로 날칼(20022)이 홀어지는 형상, 즉 깃처럼 생긴 도구로 곡식을 '홀어내는' 동작이 선명하게 읽힌다. 본래 '털어내다'라는 뜻의 털 물(勿)이었던 셈이다.

이 흔적은 만물 물(物)자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소의 등 굽개로 털을 홀어내는 모습에서 유래한 이 글자는, 본래 '털어내다'라는 동작이 한자의 핵심 자형 원리였음을 증명한다.

賜(사)와 易(이), 모래톱이 내어준 자연의 선물

줄 사(賜)와 쉬울 이(易)의 관계는 우

리 민족의 지형적 감각인 '모래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賜'는 조개(貝)를 홀어내는(勿) 모습이다. 물가 모래톱에서 조개를 홀어 건져 올리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말 '모래톱'이다. 지형이 툭너처럼 생기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왜 '톱'이라 부르는가. 이는 '홀는 도구'인 홀태(톱)의 이미지가 지형에 투영된 결과다. 자연이 거저 내어주는 조개를 홀는 일이나 '줄 사(賜)'가 되었고, 물줄기가 지형을 쉽게 바꾸는 모습에서 '바깥 역(쉬울 이(易))'라는 뜻이 파생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갑골문의 원형 정신을 가장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利(리), 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터는' 유용함

우리는 흔히 이로운 리(利)를 '벼(禾)

를 칼(刀)로 베는 모습'이라 배운다. 그러나 원형은 벼와 '털 물(勿)'의 결합에 가깝다. 벼단에서 알곡을 홀어내는 '홀태질'의 효율성을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수확의 극대화에서 '이롭다'는 뜻이, 홀태 낱의 예리함에서 '날카롭다'는 뜻이 나왔다. 더 나아가 알곡이 체에 걸러지듯 배출된다는 비유에서 대소변을 뜻하는 의미까지 확장되었다. '베는' 행위보다 '터는' 행위가 농경의 핵심적 이익임을 고대인들은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말로 복원하는 한자의 생명력

중국조차 자의적 해석에 갇혀 잃어버린 한자의 본뜻이, 역사적이게도 우리말의 '홀태'와 '모래톱'이라는 감각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한자를 중국의 전유물로만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고유의 언어 감각으로 한자를 재해석할 때, 비로소 한자의 막힌 혈관이 풀리고 고대인의 삶과 지혜가 우리 곁으로 온전히 돌아올 것이다.



Yoo Woo-gyun, Director of the Kore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왜 다시, 문해력인가?

오늘날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인가? 학력 저하일까? 사교육 과열일까? 아니면 교권 붕괴일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이다. 필자의 칼럼 「청소년들의 뒤쳐지는 문해력,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는 몇 년 전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하게 읽어야 할 교육적 경고가 되었다.

오늘날 교사들이 모여 교육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화제가 단연코 학생들의 "문해력" 결핍의 심각성에 입을 모은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문해력이라는 말조차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떤 교사는 이렇게 다시 설명한다.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힘 말이야." 그러자 한 학생이 묻는

"문해력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와 선동에 흔들리며, 민주주의마저 약해진다."

다. "뻘, 그거 요약본 있나요?"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다.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의 생각을 해석하며,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힘이다. 결국 인간의 사고력과 공감력, 민주 시민성의 기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문장을 읽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긴 글을 건디지 못하며, 질문보다 검색에 익숙한 세대로 변화하고 있다.

교실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시험 문제를 읽고도 무엇을 묻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

하지 못하는 학생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어 과목의 문제가 아니다.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 문해력의 결핍과 연결된다.

더 심각한 것은 디지털 환경이다.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깊이 읽기와 사유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알고리즘은 생각을 확장시키기보다 취향만 반복 강화하고, AI는 스스로 사고하기 전에 먼저 답을 제공한다. 이제 아이들은 "왜 그렇게 생

각하니?"라는 질문보다 "정답이 뭐예요?"를 먼저 묻는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사고 체계의 위기다.

필자는 당시 칼럼에서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의 회복을 강조했다. 시 동아리, 스피치 활동, 글쓰기 교육, 읽기 쓰기 같은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통찰은 지금도 매우 유효하다. 아니, AI 시대일수록 더욱 절박하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정보를 대신 제공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는 최후의 경쟁력은 '생각하는 힘'이며, 문해력은 바로 그 생각의 근육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다시 질문해야 한다.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읽는 시간을 빼앗겼는가? 왜 학교는 시험 문제 풀이에만 몰두하며 사유의 교육을 잃어버렸는가? 왜 독서는 취미가 되었고, 글쓰기는 수행평가 기술로 전락했는가?

문해력 회복은 거창한 정책 이전에 교육 철학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

다. 첫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에서 읽기와 토론, 서술형 글쓰기를 강화해야 한다. 국어 시간에만 문해력을 맡겨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는 '조용히 읽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독서는 과제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들에게도 읽고 쓰는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해력은 결국 교사의 언어 수준을 넘기 어렵다. 넷째, 가정과 지역사회 역시 책 읽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스마트폰만 보는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요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 중심 교육의 방향 수정이다. 지금처럼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만 강조해서는 문해력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속도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결국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문해력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와 선동에 흔들리며, 민주주의마저 약해진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은 단순한 학업 향상이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공공의 과제다.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입시제도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책을 돌려주고, 언어를 돌려주고, 생각하는 시간을 돌려주는 일이라 믿는다.



In Gok,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신곡남중학교 교장
- 前세종포교·인천세원교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 윤 용 의 100세 칼 럼

매달 반복되는 원발성 월경통, 프로스타글란딘과 중추신경 감각의 연결고리 풀기

- 1. 자궁이 보내는 경고음, 원발성 월경통의 원인과 유형별 - 원발성 월경통(Primary dysmenorrhea)은 골반 내 뚜렷한 기질적 이상 없이 월경 주기에 맞춰 발생하는 하복부의 경련성 통증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70개국 자료를 종합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원발성 월경통은 여성 인구에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학업·업무 수행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 여성 건강 문제로 지목됩니다. 병태생리학적으로 이 통증의 핵심은 자궁 내막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허혈성 통증을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월경통으로 인해 반복되는 통증 신호는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되며, 점차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중추 감각(central sensitization)' 상태를 초래하여 신경학적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진통제만으로 월경통 관리가 어려운 이유와 숨은 위험성 - 현재 원발성 월경통의 1차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제(NSAIDs)와 경구 피임약이 주로 처방됩니다. 이들 약물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차단하여 급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진통제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 복용 시 위장관 장애,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어 복용을 중단하곤 합니다. 식물 유래 한약 치료(plant-derived therapies)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러한 기존 약물의 한계와 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침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월경통이 포함되면서, 표준화된 한약 치료에 대한 치료 접근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경통이 동반하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심한 통증은 신경면역학적 불균형을 유발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진통을 넘어 신체 전반의 신경학적 안정과 염증 제어를 돕는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과학적 재해석 - 최근 뇌과학 연구는 월경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등의 신경영상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원발성 월경통을 앓은 여성들은 통증을 지각하고 조절하는 뇌의 특정 네트워크(대뇌피질-변연계 등) 구조와 활성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자궁에서 시작된 말초의 염증 신호가 뇌의 통증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월경통 치료가 자궁 수축 억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추신경계의 과흥분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4.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효과적 대안: 한약과 침 치료의 현대 과학적 근거 - 이러한 맥락에서 한의학 치료는 월경통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과와 기전이 최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침 치료는 뇌의 통증 조절 네트워크를 정상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fMRI를 이용한 연구에서 침술

은 월경통 환자의 비정상적인 뇌 기능적 연결성을 조절하여 중추성 진통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침 관련 치료를 비교 분석한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침 치료는 통증 강도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19년간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추적 연구에서는 원발성 월경통 환자에게 꾸준히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신경면역 조절 기전을 통해 향후 우울증으로 이행될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침 치료가 단순 진통을 넘어 중추신경계 보호 효과를 지남을 의미합니다.

한약 역시 다양한 약리 성분이 여러 병리적 표적에 동시에 작용하여 자궁 내 염증 환경과 혈류 개선에 기여합니다. 월경통에 대응되는 대표적 처방인 온경탕은 최신의 인공지능 기반 약리분석 연구를 통해 염증 발현의 핵심 경로인 PI3K/AKT/NF-κB 신호 전달을 억제하여 하복부의 혈류에 장애를 야기하는 원인 염증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근로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는 월경질환 치료에 오랜 기간 활용돼 온 계지복령환이 위약군에 비해 월경통 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정 처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발표된 국내 다기관 전향적 관찰연구에서도 환자 맞춤형 한약 치료가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고 통증 지속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5. 약물의 의존을 줄이는 일상 속 월경통 자가 관리법 - 임상적인 한의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적극적인 관리 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만성 월경통을 관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요법: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천연 진통제입니다. 29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종합한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따르면, 규칙적인 요가, 스트레칭, 중증도의 유산소 운동은 골반 내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통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켜 월경통 강도를 뚜렷하게 감소시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가져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와 하복부 보온: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응혈어(寒凝血瘀, 차가운 기운이 혈액을 멎치게 함)'는 실제 생리학적 혈관 수축과 일치합니다.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고 미세혈류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통을 '여성이라면 당연히 참고 견뎌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진통제에만 의존한 채 위장 장애와 우울감을 감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궁의 국소적 염증을 다스리고 중추신경계의 예민함을 잠재우는 과학적인 한의 치료와 올바른 운동 습관을 통해, 매달 찾아오는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Choi Yoon-ung, Director of the Kore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 조달청 혁신제품 | 성능인증 | GS인증 1등급 | 녹색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 산업융합혁신제품 |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전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복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대표전화

1600 - 6187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 749호

광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